

영향예보로의 전환을 통한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

대구기상지청브리핑



배포일시	2016. 10. 6.(목) 11:30 (총 2 매)	보도시점	죽 시
담당부서	대구기상지청 관측예보과	담당자	예보팀장 윤왕선 과장 조진대
		전화번호	053-956-0365

7일(금) 밤 ~ 8일(토) 오전 대구·경북 많은 비 추가피해 철저한 대비 필요

-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
- 남해상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 유입으로 많은 비
 - 특히, 태풍 피해가 발생한 경북남부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로 추가 피해 우려



< 10월 8일 새벽 예상 지상기압계 모식도 >

- 7일(금) 오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대구·경북지방으로 확대되고, 8일(토) 아침까지 많은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음

- * 예상 강수량(7일 00시부터 8일 24시까지)
 - 대구·경상북도 : 30~80mm
 - 울릉도,독도(8일) : 30~50mm

- 제18호 태풍 '차바(CHABA)'가 동쪽으로 빠져나간 자리로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확장하고,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북상함에 따라 많은 양의 수증기가 남부지방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
- 대구와 경북내륙에는 8일(토) 새벽부터 아침 사이,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, 돌풍과 함께 천둥.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음. 태풍피해가 발생한 경북남부지역은 심각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
- 또한, 산지와 내륙에 위치한 도로는 많은 비로 인해 추가적인 산사태와 토사유출의 위험성이 크겠고, 계곡 및 하천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로 급격히 물이 불어날 수 있고, 하천제방 및 축대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복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
- 한편, 8일(토) 오후에 비가 그친 후, 중국 북부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떨어져 8일(토) 밤부터 쌀쌀한 날씨가 예상됨